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둘 다 자라게 버려두라(마태 13, 24-43)

## 제41회 총회 연기

### 미주성결교회

미주성결교회의 제41회 총회가 연기됐다.

총회장인 김용배 목사는 최근 회원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 사태가 선포되고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는 등 부득이한 사태가 발생해 제41회 총회 개최를 교단 헌법 제72조 1항에 따라 연기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미주성결교회총회는 5월 4~8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14~17일로 연기됐다. 미주 총회는 지난 3월 16일, 18일 총회 실행위원회와 임원회를 잇따라 열고 총회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미주성결교회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예배가 제한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미주내 성결교회를 돕기 위한 구호성금 모금에 나섰다. 또 2019년 회기에 상회비 500달러 미만인 소규모 교회에 400달러 씩 지원하기로 했다.

## 사랑나누기 캠페인

### 남가주밀알선교단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밀알사랑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종희 목사는 “이번 캠페인은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이 이번 사태로 더 소외 당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당부한다.”며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남가주밀알선교단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밀알선교단은 현재 여러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후원물품 및 후원금을 지원받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있다.

▶ 후원 문의: (562)229-0001

“죄 지은 자의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를 이 말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란 그 사람의 인격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와 죽음의 세력이 극복되어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는 은총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왜 세상에 악이 있는가? 어찌하여 죄가 있고 고통이 있으며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가를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쁜 상황을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적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로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신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련과 단련을 통하여 우리 육신은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고, 우리의 자유와 봉사가 더욱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악과 훌륭히 투쟁하여 굳건히 살아나가 이기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라지를 뽑아 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버려둠은 곡식을 잘못 뽑을까봐 참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의 이단도 가라지 같이 분별하기 어려우며, 이 이단이 도리어 교회의 진리를 밝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잠시나마 가라지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자기 죄과에 너무 무자비하거나 남을 단죄하는데 조급하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겸손하게 뉘우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예수의 가장 실제적 비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첫째, 좋은 씨를 망치려는 악한 세력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지켜야 합니다.

둘째, 이 세상에는 선인같은 악인, 악인같은 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선악을 구별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판단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심판은 순간의 선악보다 전 생애를 보는 것입니다. 죄인이 성인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결국은 주님의 심판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와 종말의 날에 선악은 구별되어집니다.

다섯째, 심판할 권리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며, 그분만이 생의 전체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비유의 경고를 요약하면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루가 1,52)의 노래와 같이 우리가 남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 선한 이로 인정하거나 자부

우리는 대개 남을 평가할 때 외적 조건이 그럴사하면 그 사람을 우려러 보고,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혀 자기 뜻이 아닌 환경적 조건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고 차별대우하기가 일쑤입니다.

단순히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흑인이 백인 세계에서 멸시당하는 일이라든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서 천시당하는 일들이 모두 그러한 것들입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가라지가 나타났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시기에 외모나 환경은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관심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밭이 언제 가라지가 될지도 모르며, 가라지일지라도 언제 주님의 은총으로 좋은 밭이 될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중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은 항상 미숙하고 불완전하며, 그르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판단은 항상 정확하고 큰 의미를 지닙니다.

-김봉은 신부-

## 타운뉴스 업소록

# “리스팅 신청하세요!”

###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